

대학사상의 주요한 기록 (상)

- 그 자료와 해설 -

이 광 주 인제대 명예교수

머리말

오늘날 대학의 원형은 파리대학, 볼로냐대학 및 옥스퍼드대학으로 대표되는 유럽 중세의 대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이념과 제도 및 구조는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베를린대학(1810년 창립)에까지 대체로 이어졌다. 근대 이후 각국의 대학은 대개가 베를린대학을 본받아 형성되고, 오늘날 고도 기술 산업 - 정보 사회의 태동과 더불어 나타난 다원적 대학 즉 멀티버시티에 이르렀다. 본고는 크게 나누어 중세, 근대, 현대라는 세 시기에 걸쳐 대학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 몇몇 대표적인 대학의 주요한 기록(자료)과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대학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중세의 부분과 근대·현대의 부분을 나누어 두 회에 걸쳐 기술하고자 한다.

중세의 부분에서는 그레고리우스 9세의 대칙서와 파리대학, 옥스퍼드의 학예학부와 신학부의 교과목 등을 다루고, 다음 호에 게재될 근대·현대의 부분에서는 훔볼트에 의한 베를린대학의 이념, 옥스퍼드 - 캠브리지의 칼리지 제도, 나폴레옹의 대학개혁, 미국 하버드 대학의 창립이념, MIT를 비롯한 주립대학,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멀티버시티의 태동 등을 다룰 예정이다.

1. 중세대학의 '자치'와 특권

중세 대학의 본질과 특색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치'라는 특권을 누린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인 점에 있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역사는 고대 로마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세 교회법 또한 학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법적, 경제적인 여러 특권을 부여함을 뒷받침하였다. 중세에서 학도의 특권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1158년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공포한 「면학을 위해 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권」이다. 그 뒤 1194년과 1198년에는 교황에 의하여 파리대학에 최초의 특권 및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특히 파리대학을 '지혜의 온상', '그리스도교 전사의 무구(武具)'로 칭송하면서 교수 면허권을 지닌 파리 주교좌 칸셀라(尙書)의 권한을 제한하고 파리대학의 입법권과 강의 정지권을 인정하는 한편, 학칙과 학도들의 상해, 하숙비에 대해서까지도 대학인의 특권을, 파리의 대주교와 프랑스 국왕에게 요구한 1231년의 그레고리우스의 대칙서(大勅書) 「제학(諸學)의 아버지」는 특히 대학의 '대헌장'으로 불리며 중세대학의 '자치'와 '특권'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는 근세 이후에 이르러서도 비유럽 문명권의 경우와 구별되는, 유럽에 고유한

대학 공동체와 학문의 자유라는 전통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고리우스의 대칙서의 전문(全文)을 옮긴다.

〈그레고리우스 9세의 대칙서〉 (1231)

신의 가장 천한 종 주교 그레고리우스는 사랑하는 자식들인 파리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사와 교황의 축복을 보낸다. 제학(諸學)의 아버지는, 또 하나의 카리아스 세페르(cariaph sepher)와 같은 학문의 수도인 파리는 밝고 빛나 진실로 위대하며 교사와 학생에게 더욱 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도시이다. 그리고 그 곳은 말하자면 지혜의 특별한 일터에서 은의 광맥원이었고 금을 단련하여 만드는 데 알맞은 곳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신비스러운 운병의 맑은샘을 삼기는 사람들은 은의 별레 먹이 장식을 한 금 귀걸이를,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만들고 아니 그뿐일까, 그리스도의 아내를 위한 보석으로써 장식도 한다. 거기에서는 철이 채굴되고 지상에서의 그 나약함은 견고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악마들에 대항하여서는 강력한 믿음의 갑옷이나 영검(靈劍), 그 밖의 그리스도교 전사의 무기(武具)가 제작된다. 그리고 돌과도 같은 굳은 마음이 성령의 열로써 불탈 때 그 마음에 불이 붙어 울려 퍼지는 설교로써 그리스도예의 찬미를 잊지르게 됨으로써 열에 의해 녹여진 그 철광은 동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도시에서 이러한 전조가 되는 성스러운 은총을 어떤 방법으로건 방해하고자 하는 자, 혹은 방해하는 자에게 혼신의 힘으로써 공공연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신과 인간의 노여움을 크게 살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의 선동에 의해 거기에 생겨난 그 대학을 크게 교란하고 있는 분쟁에 관해, 나는 나의 앞에 제출된 제문제들이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온건한 법적인 규정에 의해 진정됨이 바람직함을 나의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와 학도의 지위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함을 명한다. 즉, 금후 파리의 칸셀라(주교좌 상서(尙書), 파리대학의 관리자 - 옮긴이 주)로서 임명되는 자는 누구나 주교 앞에서 혹은 주교의 지령에 의해 파리의 주교좌 성당 참사회에서 서약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학도의 조항(파리대학을 말함)을 대표하는 2인의 교사가 출석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칸셀라는 사람들이나 국민단¹⁾에 의한 비준이 폐지되어 있으므로, 신학 혹은 교회법의 교수 면허를 훌륭한 인사를 이외에는 수여하지 않고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함을, 그 도시의 상황이나 학부의 명예와 존경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서약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수 면허를 부여하기에 앞서서 소(小)면허(학사 학위를 말함)를 수여한 3개월 이내에 진실을 알 수 있는 그 도시의 모든 신학 교사와 다른 존경할 만한 학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칸셀라는 그 학생의 생활, 지식, 재능 및 그러한 경우의 필요한 장래성이나 성공의 가능성 및 그 밖의 점에 관해 진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명을 한 뒤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칸셀라는 신청 받은 교수 면허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수여 혹은 거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신학과 교회법의 교사들은 강의를 시작할 때 말한 여러 점에 관해 성실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모든 이의 앞에서 서약하여야 한다. 칸셀라는 또 파리의 학칙, 교사 취임식을 한 뒤에 시행되는 자유와 법규를 전적으로 그대로 지지하고 교사들의 조언을 누설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한다.

의학자와 학예학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칸셀라는 교사들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자는 거부하고 가치 있는 인사들만을 승인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곳에는 가공할 사건이 쉽게 침투하므로

1) '국민단' (nation) - 중세 대학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보호와 연대를 위해 그 출신지역 내지 국적이나 언어적 연고에 의해 '국민단' 이라는 집단을 결성하였다. 이 국민단의 존재는 중세 대학의 범유럽적인 국제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 파리대학에는 프랑스(모든 라틴어권의 나라를 포함), 노르망디, 피카르디(폴란드 포함) 및 잉글랜드(게르만의 여러 나라 즉, 독일과 북·동 유럽 포함) 등의 네 국민단이 있었다. 그 밖의 먼 지역 출신의 학생들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국민단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강의와 토론의 방법과 시간, 착용할 의복, 사자(死者)의 장례 및 어느 학사(學士)가 언제 어떤 주제에 관해 강의하여야 하는가, 하숙비 혹은 하숙비의 금지에 관한 정당한 규약이나 법령을 작성하고, 그 규약이나 법령에 복종치 않은 자를 제군들의 조합에서 제명함으로써 정당하게 처벌한다는 권능을 나는 제군들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이따금 하숙비를 책정하는 권리가 제군으로부터 박탈되거나 혹은 - 그런 일은 신이 허용치 않으리라고 기도하는 바 - 살해되거나 수족이 불구가 되는 따위의 위해나 끔찍한 폭력이 제군 혹은 제군들 중 누군가에게 가해질 경우, 고충이 제기된 뒤 15일 이내에 당연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강의를 정지하는 일이 제군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제군들 중의 누군가가 불법으로 투옥될 경우, 항의하여도 석방되지 않는다면, 제군은 만약 그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면 즉각 강의를 정지하여도 좋다.²⁾ 그 뒤에 더욱 학생들의 명예가 유지되고 죄가 처벌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파리의 주교가 위법자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나는 명한다. 그러나 위법자들로 인해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아니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그럴듯한 의혹이 생겼을 때 정중한 구류 뒤 적당한 보석금을 제출하여 그는 석방되어야 하며 교도소 간수의 강오는 끝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투옥될 만한 죄를 범한 경우 칸셀라가 그 자신의 감옥을 갖는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교가 그 죄인을 투옥하여야 한다. 나는 또 학도들이 그가 진 빚 때문에 체포됨을 금후에는 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법이나 법적 제재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교나 그의 교구 재판장 그리고 칸셀라도 파문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해제하는 대가로 벌금을 요구하거나 칸셀라라고 할지라도 교수면허 자격자들에게 서약이나 복종 및 그 밖의 서약을 요구하여서

도 안 되며, 또 칸셀라나 앞에 기술한 서약의 제조건을 준수하고 교수 면허를 수여하는 대가로 직책에서 오는 이익이나 약속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앞으로 여러 방학은 1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며 방학중이라도 학사들은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강의를 계속 하여도 좋다. 그리고 학생은 무기를 휴대하고 거리를 배회해서는 안 되며 대학은 평화와 학문을 교란하는 자들을 변호해서도 안 됨을 나는 명백히 명한다.

그리고 학생인 체 하면서 수업에도 안 나가고 교사 지도도 안 받는 자는 학도의 특권을 결코 향수할 수 없다.

나는 또 학예(학부)의 교사들은 프리스키아누스(6세기 초의 라틴어 문법학자)의 정규 강독 하나와 그 뒤 또 다른 하나의 강독을 언제나 청강하여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관구(管區)회의에서 금지된 자연학의 서적이 검토되고 오류가 있다는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파리에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명한다. 또 신학의 교사와 학생은 그들이 교수하는 학부에서 칭찬받도록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신이 철학자임을 표시하지 말 것이며³⁾ 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써 이야기하거나 히브리의 민중어를 아스테카어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서는 신학의 저작이나 교황들의 논저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만 토론하여야 한다.

또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죽거나 자기의 일들의 시종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는 학생의 재산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이 규정 지었다. 즉, 주교와 대학이 그것을 위해 1인의 교사가 고인의 전 재산을 수령, 그것을 엄연히 안전하고 적당한 곳에 맡겨 날을 정하여 그때까지 그의 사망이 그 출생지에서 고시되고 그 재산의 상속인이 파리에 오든지 혹은 적당한 사자(使者)를 대리로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오

2) 강의 정지 권 - 중세 대학은 그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강의하지 않는 강의 정지 권과, 대학을 다른 지역에 옮기는 '이주' 권을 행사하였다. 때때로 대학은 숙권 특히 대학이 소재한 도시와의 투쟁에서, 그레고리우스의 대칙서에 의해 주어진 강의 정지 권을 '이주' 권과 함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다. 캠브리지대학은 원래 옥스퍼드대학이 강의정지권과 이주권을 행사하여 한때 캠브리지 마을에 옮겨진 결과 생겨난 대학이다.

3) 원래 금서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해금되자 파리의 학생들은 성서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더욱 심취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카톨릭 교회는 두려워하여 철학적 논의보다도 믿음에 더욱 정진할 것을 학도들에게 때때로 경고하였다.

든지 사자를 보내든지 하면 그 재산은 정해진 안전 보장으로써 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주교와 그 교사가 적당하다고 여겨진 대로 재산을 고인의 영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때마침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로 인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적당할 때까지 그 처분이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리시가 그들에게 선서한 서약을 파괴한 까닭에 위해와 손해를 입은 교사와 학생들은 그 대학을 떠난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송 사실보다도 오히려 공동의 소송 사실을 신청한 듯이 생각된다. 나는 교회의 일반적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명한다. 즉, 금후 이들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인 영광스러운 프랑스 국왕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벌금이 그들의 가해자들에게 과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다시 오명을 뒤집어쓰거나 강의를 받는 것이 불규칙해지는 일 없이 파리에서 합법적으로 면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규정과 법령 및 금제(禁制)의 이 문서에 위반하거나 경솔히 반박하거나 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누구라도 감히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그는 전능의 신과 성스러운 사도인 페테로와 파울의 노여움을 사리라는 것을 그에게 알릴지이다.

-나의 교황직 제5년 4월 13일 라테라노 궁정에서 작성.-

2. '토론' 과 '답론'의 학풍

자치의 특권과 더불어 중세 대학의 또 하나의 본질적 요소 특색을 이루는 것은 '답론discourse'의 학풍이다. 중세의 대학은 교사가 정해진 텍스트를 구술하고 해설하는 <강의> 과목과 더불어 아니 그 이상으로 <토론>과목을 중요시하였다. 토론은 우선 교사가 주제를 미리 정하고 널리 알린다. 그 주제의 전개에 대해서는 토론에 참가한 교수나 학사 소지자(졸업생) 그리고 학생도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토론을 청한 교수는 '이론(異論)' 제기에 대해 자기의 해답으로 응수하고 결론까

지도 내린다. 그 결론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 내지 비판이 제기된다. <토론>의 모든 진행은 빠짐없이 기록되며 그 중요성은 결론이 무엇이나에 있지 않고 토론 그 자체의 과정과 해법에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당시의 모든 학습의 방법론은 '원문 읽기'로부터 시작하여 '질문'을, '질문'으로부터 '토론'을 이끄는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을 개발하여 그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써 표현하는 변증법적인 지적 훈련으로 유도한다. <토론>의 중요성은 <강의>가 대체로 강사들에 의해 행해진 데 대해 반드시 정교수의 주도에 의하고 그리고 모든 정교수가 연 2회 '자유 토론' 즉 공개 토론을 주재해야 했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성직자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관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공개 토론은 대학 도시의 중심 광장에서 열리어 교회의 문제 혹은 현실 정치문제 등 미묘한 주제가 상정되기도 하였다. 중세 대학의 <토론>은 근대 이후 근대로 <세미나(연습)>에 이어지고 '답론'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학풍을, 그에 더하여 답론하는 유럽의 지적 풍토를 또한 발전시켰다. 이러한 토론하는 학풍, 논의하는 지적 풍토를 선구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인물이 바로 아벨라르(1079~1142)였다.

'필경 학문에 대한 사랑에 유인되어 귀족 신분을 버리고 배움의 길에 들어선 아벨라르는 무엇보다도 논의를 즐긴 '변증법의 투사'요 그리하여 그는 신학자이기보다도 진실을 끝없이 묻는 철학자요 교회의 도그마에 항거한 이단자였다. 단순한 강의용 교본과는 판이한 유럽 최초의 방법론 서술이라고 할 그의 저작 『가(可)와 부(否)Sic et non』(1122)를 통해 그는 그의 학생들을 무엇보다도 묻는 방법, 교수방법에 눈뜨게 하였다. 아래와 같이 여기에는 15항목을 예시하였으나 원래 158개 항의 중요한 도그마에 관해 교부들의 입장을 '가와 부'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해법을 학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게 한 『가와 부』는 권위가 아닌 논증(이성)에 의해 진리를 탐구한다는 아벨라르의 진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담

론의 학풍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향한 이 유럽 '최초의 교사' (르 고프)는 또한 최초의 근대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벨라르의 『가(可)와 부(否)』

'인간의 신앙은 이성에 근거하여야 하는가, 아닌가'
 '신은 단일(單一)한가, 아닌가'
 '제1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가, 아닌가'
 '죄는 신에게 있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신은 악의 창조자인가, 아닌가'
 '신은 전능한가, 아닌가'
 '신에 저항할 수 있는가, 아닌가'
 '신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
 '최초의 인간은 악마에 의해 죄를 범하도록 설득되었는가, 아닌가'
 '이담은 구제되었는가, 아닌가'
 '요한 이외의 모든 사도는 아내를 갖고 있었던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제단의 사크라멘트(聖事) 속의 사실로 존재하는가, 아닌가'
 '우리들은 때때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는가, 아닌가'
 '신은 동일한 죄를 현세와 내세의 양쪽에서 범하는가, 아닌가'
 '숨어서 죄를 범하기보다도 공공연히 범하는 것이 나쁜가, 아닌가'

3. 중세 대학의 학부

〈학부facultas〉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1219년의 교황의 교서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대학 성립의 초기인 13세기에는 2~3개의 학부만의 대학이 많았으나 차차 4개 학부 즉, 7자유학예를 교수하고 연구하는 하급(기초)학부인 학예학부와, 신학부·교회법 학부(법학부)·의학부의 세 상급 학부로 구성되

었다. 이 4개 학부 체제는 대체로 19세기 말까지 답습되었다.

학부는 각각 학부장(decanus)에 의해 통괄되었다. 유럽 최초의 대학으로서 쌍벽을 이룬 볼로냐대학이 법학부 중심의 대학인 데 대해 파리대학은 신학부 중심이었다. 본고에서는 파리대학의 신학부에 관해 대학사의 고전인 라쉬돌의 『중세 유럽대학』(1936)에 의거하여 기록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신학부는 파리대학에서는 물론 그것을 본받아 창립된 옥스퍼드를 비롯한 알프스 이북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 중심 학부였다.

파리대학의 신학부

파리대학의 신학부는 13세기 이래 교황에 의해 '주(主)의 집의 빛나는 등불'로서 특별한 배려와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하여 볼로냐대학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대학이 오랫동안 신학부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파리의 신학부 교수는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카톨릭의 공(公)회의에서 언제나 상석권을 차지하였다. 중세기 파리대학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이란 그것이 유럽 최대의 신학부를 지닌 점에서 연유되었다.

신학부 학생의 대다수는 수도원, 학교, 성당에 복귀한 대학 출신자의 자제였다. 그들은 6년간 수학하였으며 그 중의 4년간은 성서 강의를 받고 나머지 2년은 12세기의 스콜라 학자인 롬바르두스의 『명제집(命題集)』 강의를 출석했다. 다른 학부와는 달리 6년간 배우는 교본이 성서와 『명제집』뿐이었던 것이다. 6년간 수학한 뒤 신학생은 나이가 26~27세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규정된 강의에 충분히 출석했다는 증명을 갖고 학부의 교사단 앞에서 자기의 '제 1코스' 즉 학사 학위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학위 코스인 박사 학위는 35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교사 4인의 시험관에 의한 시험에 합격되면 학부장으로부터 정식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제 1코스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서의 한 권에 관해 강의를 한다.

신학생 중에는 성당이나 수도원에 속한 성직자가 적지 않았으며 재속(在俗) 신학생은 대체로 학예학부의 교사이기도 하였다. 신학 학위 지망생에게는 토론, 연습, 논문과 함께 설교도 요구되었다. 신학생은 소르본느 칼리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칼리지 입사(入舍)의 특전 등 다른 학부 학생에 비해 여러 혜택을 누렸다.

모든 대학에서 신학부 출신자는 많지 않아 그들은 쉽게 취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특히 급어가 좋았다) 이외에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의 관리·외교관·비서·고문·의사·건축가 및 법률가로서 거의 모든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성직은 바로 직업과 동의어를 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대개 귀족 가문 출신인 고위 성직자는 신학부가 아닌 교회법학부 출신이 많았다.

신학부 교사들은 다른 학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강의는 실제 교사인 배첼러 즉 학사 학위(B.A.) 소지자들에게 위임하고 그들 자신은 토론, 시험 및 그 밖의 집회만을 주재하였다. 그들은 다른 학부의 교사들에 비해 학내 외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고 대학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대성당의 명성 높은 설교자였으며, 그 교직은 고위 성직에 이르는 예비 단계로 여겨졌다. 한편 중세 전체를 통해 서적 검열은 교황의 특명에 따라 파리대학의 신학부에 의해 전적으로 집행되었다.

4. 옥스퍼드의 학예학부 및 신학부의 교과목

학예학부는 오늘날의 교양학부로서 기초 학부(하급 학부)이다. 그러나 중세 대학에서 그 학부장은 대학 전체의 장이었다. 그 까닭은 학생과 교사가 어느 학부보다도 크게 많았던 까닭이다.

학예학부의 학과목은 7자유학에 즉, 문법·수사학(변론술)·논리학·산수·기하학·음악·천문학 등 교양 과목이다. 그것을 '자유학에 art liberales' 라고 함은 그것이 '자유인 liber' 을 위한 '학예arts' 이며 '교양' 이기 때문이다.

7자유학에는 그리스 시대의 교육과정을 이어 받아 5세기 이후 중세 교육의 기본이 되고 근세 이후에도 교양학부 혹은 철학부로서 그 전통이 훌륭히 계승되어 유럽 대학을 일종의 교양 공동체로서 발전시켰다. 다시 강조하는 바, 중세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린 유럽 대학의 특색은 대학이 자치와 담론의 공동체이며 학예학부의 존재가 상징하듯이 교양 공동체인 점에 있다.

학예학부의 교양과목 학습 수준은 오늘날의 중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초·중·고등 과정이라는 교육체계가 결여된 중세기에는 수도원학교나 성당학교에서 7자유학에의 교육을 받고 라틴어의 초보 지식이 갖추어지면 학예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생의 연령도 대개 13~16세 정도였다. 학예학부를 이수한 뒤에 진학하게 되는 신학부·의학부·법학부 등 상급학부 학생은 20대나 30대였다.

모든 강의와 토론은 당시 교회의 언어이며 학식자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학과목은 논리학(변증법)과 수사학이었다.

학사 학위를 받은 뒤 20세가 되면 될 수 있었던 학예학부의 교사들(아직 '교수' 라는 용어가 없었다.)은 비교적 젊었으며 그들은 초급학교 교사나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봉록 즉 성직록(祿)을 받는 성직자 신분이었으므로 그들은 독신을 지켜야 하였다.

교사들은 학식자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았으나 그들 중에는 직무에 태만하는 자와 학식이 미흡한 자가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젊었던 학예학부 교사들은 학생과 사제지간이라기보다도 형제나 동료와도 유사하여 때때로 놀이나 난행(亂行)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학예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 이하 전통적으로 교양 교육을 자랑하는 옥스퍼드대학의 학예학부와 신학부의 교과목을 살펴보자.

교양학부의 교과목

문학사(B.A.)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4년간 수학하여야 하며 <강의>와 <토론> 과목과 함께 적어도 1년간 2, 3학년생으로서 광장에서 토론한 경험이 있어야 하였다. 이수 교과목과 그 교본은 4세기 중엽 라틴어문법 학자인 도나투스의 『아만스러운 어법』, 그리스 철학자 포르피리오스의 중세의 표준적인 논리학 교본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 11~12세기 신학자 포레의 『6개의 원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적 강변』, 산술, 부활제의 산정법, 소정 강의로서의 신구 논리학, 그 외에도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교양학부의 교수면허 및 교수 취임을 위해서는 3년의 수학이 더 필요하고, 토론 재정(裁定)을 허용받은 일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강의』가 허용되며 그에 대해 강의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에 관해 응답하고 그 밖의 일정수의 토론에 참가한 경험이 요구되었으며, 문학사 취득을 위한 강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7학예학과 세 과목을 청강하여야 했다.

- 문법 - 프리스키아누스의 라틴어 문법서 『문법(대문법 혹은 소문법)』(1학기간)
- 수사학 -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3학기간) 혹은 보에티우스의 『수사·문예학』(제4권) 혹은 키케로의 『신수사학』, 오비디우스 『변신보』 혹은 베르길리우스 『시학』
- 논리학 - 아리스토텔레스 『명제집』(3학기간) 혹은 보에티우스 『수사·문예학』(처음의 3권)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분석학 전편』, 혹은 『수사·문예학』
- 산수 - 보에티우스(1학기간)
- 음악 - 보에티우스(1학기간)
- 기하 - B.C.3세기 그리스 기하학의 대성자 에우클레이데스, 혹은 10~11세기 아랍계의 수학자 알하젠(2학기간) 혹은 13세기 독일의 스콜라학자 비텔로 『원근법』
- 천문학 - 『유성론』(2학기간)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대전』
- 자연철학 -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천계(天界)·세계

론』(3학기간) 혹은 『기상론』, 혹은 『식물론』, 혹은 『생명원리론』, 혹은 『동물론』, 혹은 『자연학 소론집』(이상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 도덕철학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중 하나(3학기간, 이상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 형이상학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2학기간)

신학부의 교과목

M.A.의 경우 4년 내지 5년간의 수학이 요구되고 그간에 3년간 성서의 청강과 롬바르투스 『명제집』이 이수되었다.

『명제집』을 강의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신학사(B.D.)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M.A. 취득자의 경우 2년 더 즉, 합계 6~7년을 수학하여야 하였다. 그간 몇 회에 걸쳐 토론의 <반론연습>을 이수하였다.

교수면허 즉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더 수학하는데 그간의 이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성서와 『명제집』에 관한 강의 경험
- 성메아리교회에서의 설교 연습
- 학위가 없는 반론자 상대의 8회의 응답 연습
- 모든 성직의 신학 교수와의 반론자로서의 토론
- 『만과집晩講集(베스페리아에)』

5. '유니버시티'의 명칭의 유래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University, Université, Universität'는 라틴어의 'Universitas'에서 유래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기에 이 '우니베르시타스'는 원래 단순히 다수, 복수, 사람의 집합체를 뜻했다.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는 합법 단체, 법인 단체를 의미하였다.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이르러 이 말은 교사나 학생들의 조합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여러 단체 특히 길드나 자치도시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말은 처음에는 결코 독립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

은 '학생의 조합 *universitas scholarium*', '교사의 조합 *universitas magistrorum*' 등의 용어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가 중세에는 교사나 학생의 연구하는 집단을 지칭할 뿐, 그러한 집단이 존재한 장소 혹은 공동의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아카데미한 기관을 뜻하는 말은 오히려 'studium'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말은 'studium generale'이다.

'유니베르시타스'와 '스투디움' 혹은 '게네랄르 스투디움'과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것이 동의어가 된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 뒤 학문의 모든 영역의 종합적 연구를 뜻하는 '*universitas litterarum*'과 같은 근대적인 해석을 보충하여 오늘날의 '대학'의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 **참고문헌**

〈자료 출전 및 참고문헌〉

- L.THORNDIKE, *UNIVERSITY RECORDS AND LIFE IN THE MIDDLE AGES*, 1975.
 E.P.CUBBERLEY, *READING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1920.
 H.RASHALL, *THE UNIVERSITI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S*, VOL. I. II. 1936.
 李光周, 『大學史』, 1997.

이광주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전주대·인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인제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